

# 광양 K-POP 페스티벌 ‘글로벌 관광축제’ 각인

### ‘K-POP’·‘7080&트롯’ 세대 초월 인기몰이...3만여명 어울리며 42억 경제 효과

광양 K-POP 페스티벌이 글로벌 관광축제로 안착하고 있다.

광양시는 글로벌 관광축제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이 3만여명이 찾은 가운데 수준 높은 공연과 시민의식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1일 양일간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어우러진 K-POP 공연과 7080&트롯을 개최해 시민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 및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평이다.

관람권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관심이 쏠린 ‘제3회 K-POP 페스티벌’은 서울,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관심을 끌어모으며 세대, 취향, 국경을 넘은 글로벌 관광 축제로 안착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축제 준비기간 성공적인 K-POP 페스티벌 개최를 목표로 두고 안전한 공연과 관람을 최우선으로 했다. 수차례에 걸쳐 추진 상황보고회 및 종합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준비를 해왔다.

원활한 교통 및 주차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귀

갯길까지 운행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해병발전회, 모범안전자회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또 관광객들의 동선, 화장실, 쓰레기 배출장소 등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환경 조성도 고려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대비해서는 무릎담요, 손난로 등을 준비했다.

시는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총동원해 전방위 홍보를 펼쳤으며 공연 당일엔 유튜브 생중계로 페스티벌의 감동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청소년댄스경연대회를 열어 미래 K-POP을 이끌 예비 뮤지션들에게 끼와 열정을 발산할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생동하는 젊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갔다. 페스티벌을 보기 위해 광양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글로벌 관광 축제의 취지를 살리고 글로벌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음료, 통역, 주차 등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봉사,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돋보이면서 지속 가능한 글로벌 관광 축제의 가능

성을 제시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관광객 등 방문객 급증에 따라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관광객 및 지역민 소비지출 등 42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말 이틀에 걸쳐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서울, 수도권 등 원거리 가족 단위 관광객이 급증해 지역 내 업체가 참여한 음식 부스에 장사진을 이루고 음식, 숙박 등 인근 상권까지 활기를 띠며 지역 경제에 호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공연장을 찾은 한 외국인인은 “TV나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던 K-POP 공연을 무대 코앞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K-POP 공연을 보러 광양에 왔는데 깨끗한 도시이미지와 맛있는 음식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시민 A씨는 “K-POP공연과 7080&트롯이 연이어 열려 중학생 딸아이는 첫날, 우리 부부는 둘째 날 공연을 즐겼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페스티벌이 광양에서 매년 열려 서울이나 대도시로 가지 않고도 공연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난 20일과 21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국내외 관광객이 어우러진 K-POP 공연과 7080&트롯을 양일간 개최했다. 인기 걸그룹 K-POP 공연 모습. (광양시 제공)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수도권에 편중된 공연을 광양에서 개최해 시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는 한편 지속 가능한 명품관광 도시로 쉼은 글로벌 관광 축제였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 공급 토양 환경 개선 도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1500ha에 달하는 곡성군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곡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곡성군은 올 한 해 동안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힘써왔다.

지역 농가에 토양개량제 2816t, 유기질 비료 1만 6575t 공급을 지원했다.

또한, 푼거름 작물인 헤어리베치와 자운영을 32t 지원하기도 했다.

유기 농업 자재는 579t, 벼를 모판에 심기 위한 수도용 상토는 3874t을 사용했다.

농림부는 평가에서 유기물 함량 등 적정성과 비료 적정사용 정도, 토양개량제 공급·공동 살포 실

적, 예산 집행 노력, 비료 품질관리 노력, 지자체 정책 협조 등을 검토했다.

곡성군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벼 재배면적의 40%에 달하는 1514ha로 집계됐다.

곡성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과 친환경 농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자재를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앞장” 허영만 화백, 여수시 홍보대사 위촉

여수 출신 국민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여수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여수시는 ‘2023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허영만 화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영만 화백은 각시탈과 날아라 슈퍼보드, 타짜, 식객 등 유명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의 작품 가운데 27개 작품이 영화나 드라마, 만화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제작돼 일본과 중국, 태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통해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은 “다양한 작품활동을 통해 여수시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의 홍보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고, 허 화백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허영만 화백이 여수 출신으



여수시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정기명(왼쪽) 여수시장과 허영만 화백. (여수시 제공)

로 고소동 천사 벽화마을 3구간이 허영만 화백거리로 조성이 돼 있는 등 여수시민에게 친숙하고, 작품활동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만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정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순천만정원박람회 추억, 사진작가 작품으로 남기자

### 이용일 작가, 25~27일 선착순 500명 무료 촬영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사진 촬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 촬영은 순천만국가정원 호수공원 나루터(동문)에서 진행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착순 500명의 사진을 이용일 작가가 찍어준다.

이 작가는 지난 2021년에도 국가정원에서 재능 기부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찍은 사진은 즉석에서 인화(1매)해 가져갈 수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지난 8월부터 국가정원 서문국 제습지센터 1층에서 스스로 사진을 찍어갈 수 있는 ‘정원세탁’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소품을 가지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구례5일시장, 감 직거래 장터

구례군이 단감과 대봉 집중 출하 시기에 맞춰 구례5일시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날은 오는 28일과 11월 3일, 8일, 13일이다.

구례군은 지역 감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9번째 ‘구례 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직거래 장터는 구례5일시장에 새로 조성된 주차장에서 열린다.

100여 가구의 감 농가가 맛과 품질을 엄선한 단감·대봉을 선보일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구례 감’은 작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고흥군, 연말까지 폐슬레이트 40톤 추가 처리

고흥군이 올해 연말까지 1급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슬레이트 40여t을 추가로 처리할 계획이다.

과거 지붕 마감재로 사용되었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고흥군은 연초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치된 폐슬레이트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칭이나 마을 공터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80여t을 확인했다.

군은 상반기 42t을 처리 완료했고, 나머지 40여t을 연말까지 추가로 처리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 추정예산으로 4400만원을 확보했으며,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그린알로에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첨가물 0  
염색료 0  
감미료 0  
합성향료 0